Check for updates

사회과학연구 제37권 4호(202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09-132
http://dx.doi.org/10.16881/jss.2026.10.37.4.109

이민자의 한국어 유창성 수준이 관찰자의 이민자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된 성숙도의 매개효과*

하 창 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이민자가 겪은 고통(신체적/사회적)을 추정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추정된 성숙도와 공감적 관심에 의해 순차적으로 설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전등록한 연구의 방법을 따랐으며, 참가자들은 네 조건(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높음 vs. 낮음 × 이민자의 성별: 남성 vs. 여성) 중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음성 내용을 듣고 추정된 성숙도, 공감적 관심, 신체적/사회적 고통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과 신체적/사회적 고통 추정 간의 관계가 추정된 성숙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낮은(vs. 높은) 언어 유창성의 이민자를 덜 성숙하다고 추정하였으며, 낮게 추정된 성숙도는 낮은 신체적/사회적 고통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들의 성숙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 고통 추정에 편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이민자, 언어 유창성, 추정된 성숙도, 공감적 관심, 신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7012542).

† 단독저자 : 하창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E-mail : changhyunha@chungbuk.ac.kr

■ 최초투고일 : 2026년 8월 3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9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5일

1. 서 론

한국 사회의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2024년 기준으로 약 26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영주권 자격 외국인들이 약 20만 명, 결혼 이민자 수가 약 18만 명으로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2024). 사회가 다문화 또는 다인종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성원들(특히 토착민)은 이민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수 집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들이 느낀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은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라 언어적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이민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에 대한 유창성이 낮을수록 차별 경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Berry, 1997), 이러한 차별 경험은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언어 유창성 관련 영역들(예: 억양, 강세, 말하기 속도)은 화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quiran & Nicoladis, 2020; Deprez-Sims & Morris, 2010; Street, Brady, & Putman, 1983). 비원어민 억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어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가 원어민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보다 능력이 낮다고 평가받았다(Baquiran & Nicoladis, 2020). 심지어 어린 유아들도 원어민 억양을 사용하는 사람을 외국인 억양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Kinzler, Dupoux, & Spelke, 2007). 또한, 미국에서 일본어(Hosoda & Stone-Romero, 2010)나 프랑스어(Deprez-Sims & Morris, 2010) 억양을 가진 지원자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직업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말 속도가 느릴수록 유능성과 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Street et al., 1983; Tavakoli, Nakatsuhara, & Hunter,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창성과 관련된 지표들(예: 억양, 말하기 속도; Baquiran & Nicoladis, 2020; Deprez-Sims & Morris, 2010; Street et al., 1983)을 결합하여, 전반적으로 평가되는 언어 능력을 언어 유창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몇몇 연구자들(Guillot, 1999; Schmidt, 1992; Wood, 2001)은 유창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언어 유창성은 언어를 문맥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유창성은 종종 확장된 의미를 가지며, 전반적인 구두 능숙도(oral proficiency)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Chambers, 1997). 또한 언어 유창성은 제2 언어에 대한 구두 능숙도의 핵심 지표이며, 제2 언어 평가의 기초로 널리 사용된다(Peltonen, 2024). 독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Oganian, Heekeren, & Korn, 2019)에서는 참가자들의 제2 언어(영어) 유창성을 연구할 때, 언어 유창성을 특정한 특성들이 아닌 일반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어 유창성 중에서 특히 구두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적 측면의 유창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언어 유창성은 이민자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차별 경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른 편향을 살펴보려 하였다.

한편, 타인의 고통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고통을 겪은 대상에게 적절한 치료나 개입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백인과 흑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추정에서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연구(Drwecki, Moore, Ward, & Prkachin, 2011)에서 간호사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영상 속의 백인과 흑인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시청한 후에, 해당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얼마나 처방할 것인지를 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흑인들에게 진통제를 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Hoffman과 Trawalter(2016)는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흑인들의 피부가 더 두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편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들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편향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체적 고통은 외상성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을 의미하며(Deska, Pejic, Chen, & Kunstman, 2025), 사회적 고통은 거절, 배제, 혹은 따돌림과 같은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Jaremka et al., 2014; Luo, Hawkley, Waite, & Cacioppo, 2012). 이민자에 대한 고통 추정에서 편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민자에게 물리적 처치(예: 약처방, 물리치료 등)나 심리적 지원(예: 심리 상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민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정책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통을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언어 유창성에 따른 두 고통 추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타인의 시점에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더해, 이민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적 공백을 보완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유창성에 따른 다양한 편향이나 차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각과 편향이 어떠한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라 대상이 겪은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 추정에 편향을 일으키는지를 탐색하고 그 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민자는 출신 국가, 체류 자격, 이주 배경 등을 특정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는 실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처음 만난 이민자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언어 유창성과 같은 제한된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1) 언어 유창성과 추정된 성숙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5)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은 2018년 52.81점, 2021년 52.27점, 2024년 53.38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점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진행된 조사(송유진, 2008)에서는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가 증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25.5%가 동

의하고, 39%가 중립을, 35.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직업적 측면에서의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이민자들에 대해 더 큰 혐오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삼, 노은영, 2014). 이에 더해,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은 일상생활, 교육, 행정서비스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김희주, 2019). 이러한 부정적 태도나 차별은 한국인들이 이민자를 외집단으로 지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 Turner, 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사회적 범주로 구분하고,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을 긍정적으로, 외집단(out-group)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와 집단 간 비교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행동의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외집단이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지각되거나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외집단 구성원이 지닌 다양한 특성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각과 판단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정현, 박서연, 전희정(2017)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세 가지(구조적, 문화적, 환경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관점은 사회적 권력 관계에 기반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적 관점은 문화 환경과 의사소통에 대한 적응으로 언어 능력이나 이주 시기 등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환경적 관점은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회문제가 내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이 차별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세 관점 중에서 본 연구는 문화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언어 능력에 따른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나 지각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 능력은 차별 경험과 상관을 보이며,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Berry, 1997). 언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민자들의 경우 사회 부적응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며(안미영, 2015),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는 억양에 대한 연구에서는 원어민의 억양을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한 낙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Gluszek & Dovidio, 2010). 또한 외국인 억양을 사용하는 대상들은 고용 장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위 또한 낮게 지각되기도 한다(Deprez-Sims & Morris, 2010; Hosoda & Stone-Romero, 2010). 심지어 중국식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는 원어민 억양으로 말하는 의사보다 덜 유능하다고 지각되었으며, 이는 억양이 화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quiran & Nicoladis, 2020).

이렇듯 언어 능력은 외국인/이민자들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 적응하고 차별 경험을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언어 능력이 낮은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국인이 외국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 수 있다.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Beebe & Giles, 1984)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서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전략을 사용한다. 내국인들은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외국인 지향 언어(Foreign Directed Speech; FDS)를 사용하는데, FDS는 상대적으로 느린 말속도와 높은 음조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영아 지향 언어(Infant Directed Speech; IDS)가 가지는 특징들과 비슷하다(Knoll, Uther, MacLeod, O'Neill, & Walsh, 2006). 영아에게 이야기하는 방식과 외국인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비슷한 것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FDS를 사용

하면서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아동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동처럼 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FDS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언어 유창성이 낮은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성숙하다고 지각될 수 있다.

기존 성숙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Helson과 Wink(1987)는 성숙도를 '효과적으로 사회에서 기능하며 사회 규준 내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심리 내적 구별 능력과 자율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Greenberger와 Sorensen(1974)은 성숙을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적합성(정체감, 일에 대한 성향, 자신감), 대인 간 적합성(신뢰,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적합성(사회정치적 개방성, 개인적 문화 차이에 대한 인내, 사회적 헌신)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주로 심리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성숙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성숙의 측면보다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국립국어원, 2026)'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 '어른스러운 정도'를 성숙도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2) 추정된 성숙도, 공감적 관심과 고통 추정

사람들은 대상의 성숙도에 따라 공감적 관심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성숙한 대상보다 덜 성숙한 대상들에게 공감적 관심을 높게 가질 수 있다.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목격함으로써 발생하는 걱정이나 연민의 정서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접근 지향적 태도를 일으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도 한다(Batson, 1991; Stocks, Lishner, Waits, & Downum, 2011; Woltin, Corneille, Yzerbyt, & Förster,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대상들(예: 유아)은 성숙한 대상들보다 공감적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이민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그들을 덜 성숙하게 지각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이민 온 국가에서 삶의 고난이나 역경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안미영, 2015; Berry, 1997), 이러한 생각은 이민자들에 대한 연민과 같은 감정을 더 불러일으켜 그들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해 높은 공감적 관심을 갖는 것은 대상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우며, 대상에게 부정적인 행동(예: 공격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여한다(Jolliffe & Farrington, 2011). 또한, 공감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의 대상에게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상을 도우려는 이타적 동기가 활성화된다(Dovidio et al., 1990). 심지어, 대상에게 공감적 관심을 가지게 되면, 대상의 결점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하였다(Batson & Ahmad, 2001). 또한, 관련 연구(Klimecki, Mayer, Jusyte, Scheeff, & Schönenberg, 2016)에서 참가자들은 공감적 관심을 느낀 대상에게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게임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g, Fox, Hessenthaler, Stodola와 Davidson(2015)의 연구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적 관심을 느끼는 것이 그 대상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공감적 관심이 타인을 향한 친사회적 행동과 견고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고통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 Batson et al., 2015)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감정이 이타적인 동기를 일으켜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키

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공감적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겪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과소추정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존재한다. Lim과 DeSteno (2016)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을 도우려는 행동(예: 기부)과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Drwecki 등(2011)의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통 추정 및 처치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참가자들은 백인들에 대한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하고 더 강한 치료적 처방이나 처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참가자의 공감적 관심(또는 공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흑인들보다 백인들에 대해서 더 높은 공감적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흑인보다 백인들에게 더 강한 치료적 처방이나 처치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은 대상이 겪은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는 집단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인종적 편향과 관련된 연구(e.g., Drwecki et al., 2011)의 결과를 이민자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흑인 집단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고정관념이나 적대적 태도가 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 집단의 경우에는 이들이 처한 독특한 맥락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이민자들의 낮은 언어 유창성을 다소 미숙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지각하는 것은 이민 국가에서 이들이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이나 차별을 연상시킬 수 있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불쌍함이나 연민의 감정을 유발하고, 나아가 공감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적 관심은 결과적으로 이민자 집단이 겪는 신체적/사회적 고통을 더 크게 지각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언어 유창성과 추정된 성숙도, 공감적 관심, 고통 추정(신체적/사회적)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를 세우고 검증하였다.

- 연구 가설 1. 언어 유창성이 높은 이민자보다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의 신체적/사회적 고통이 더 높다고 추정될 것이다.
- 연구 가설 2. 언어 유창성과 신체적/사회적 고통 추정 간의 관계는 추정된 성숙도와 공감적 관심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어 유창성이 낮은 대상의 성숙도를 낮게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은 더 높은 공감적 관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는 더 높은 신체적/사회적 고통과 연관될 것이다.

3) 기타 변인(통제 변인 및 탐색적 변인)

외국인들과 관련된 경험들은 이민자의 고통을 추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험이나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등의 행동들은 접촉 경험을 통해 대상에 대한 특정 태도를 형성하도록 이끌 수 있다. Allport(1954)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다른 집단 구성원과 긍정적 접촉이 집단 간 편향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적 접촉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를 도와 집단 간 편견을 줄이도록 돕는다(Allport, 1954; Pettigrew & Tropp, 2006). 이처럼 참가자의 경험에 따라 이민자에 대해 사전에 형성되어있는 태도가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추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 거주 경험과 외국인 친구 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민자의 고통을 다르게 추정할 수 있다. 고통 추정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통에 더 민감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Summers, Deska, Almaraz, Hugenberg, & Lloyd, 2021), 이에 더해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고 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Paganini, Summers, Ten Brinke, & Lloyd, 2023). 반면, 대상의 성별과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본 Cheek과 Shafir(2024)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타인의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 경험을 과소추정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나 대상의 성별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Ha와 Park(2024)의 연구에서도 대상이 받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상이 겪은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상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하는 성별의 주효과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지만, 대상의 성별과 대상의 특성(예: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Cheek & Shafir, 2024; Ha & Park, 2024)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특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범주화 및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른 고통 추정에 이민자의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적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탐색적 연구 문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과 이민자의 고통 추정 간의 관계가 이민자의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방 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표본 수 산출 방법, 연구 절차, 측정 도구 등은 사전등록을 하였다(the Open Science Framework: https://osf.io/m7z4v/). 본 연구의 방법과 측정 도구 등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CBNU-2024-A-0062).

1)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 수는 2(언어 유창성: 높음 vs. 낮음) × 2(이민자 성별: 남성 vs. 여성) 요인설계를 고려하여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의 F-test(ANOVA: fixed effects, main effects and interactions)를 사용해 산출하였다. 연구 가설 1과 탐색적 연구 문제에 대한 참가자 산출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인 언어 유창성 수준(높음 vs. 낮음)을 집단 수로 고려하였으며, 탐색적 변인에 해당하는 대상의 성별도 산출에 반영하였다. 또한, 검정 방법을 양측 검정으로 하였으며 사회심리학에서의 중간 효과 크기에 대한 연구 결과(Richard, Bond, & Stokes-Zoota, 2003)를 참고하여 효과 크기를 Cohen's d = 0.36으로, 유의수준을 .05로, 검정력을 80%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참가자 수는 245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가설 2에 대한 참가자 수는 Sim, Kim 그리고 Suh(2022)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를 가정하면 2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라는 제안을 참고하였다.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 그리고 탐색적 연구 문제에 대한 참가자 수 계산 및 제안된 참가자 수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28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80명이 참가하였고 모든 자료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4.46세(SD = 7.39)였고,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가 각 140명이었다.

2) 절차

연구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가설이 노출되는 것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의사소통 및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가 포함된 설명서와 참가 동의서를 제공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연구 과정을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네 조건(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높음 vs. 낮음 × 이민자의 성별: 남성 vs. 여성) 중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이민자의 음성 내용(버스를 타고 마트에 가는 방법)을 들은 뒤에 조작 점검, 추정된 성숙도, 공감적 관심, 신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 주의 점검, 참가자 경험(통제 변인: 외국 거주 기간, 외국인 친구 수)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나이, 성별)에 답하였다. 모든 응답을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의 본래 목적과 가설이 적힌 사후 설명서를 제공받고 연구 참가가 종료되었다.

3)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및 성별 조작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중국인 남성과 튀르키예인 여성의 도움을 받아 언어 유창성이 높은 버전과 낮은 버전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녹음하였다. 이민자의 성별은 목소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민자의 이름이나 국적 등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편향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민자와 관련된 다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음성의 내용은 '대형 마트에 가는 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음성은 the Open Science Framework에서 본 연구의 사전등록에 업로드된 파일을 통해 들을 수 있음).

(1) 높은 유창성 조건의 음성 내용 – "저는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기 위해 집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네 정거장을 가야 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에 5분 정도 걸어가면 마트가 있습니다."

(2) 낮은 유창성 조건의 음성 내용 – "저 대형 마트 가기 위해 버스장 가서 버스 타 네 개 가요. 버스 내려 5분 가자 마트 있어요."

4) 측정 도구

(1) 조작 점검

본 연구에서는 음성을 통한 언어 유창성의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음성을 들은 뒤, '이 사람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7점 척도로 답하였다(1 = 매우 낮은 점수 2 = 꽤 낮은 점수, 3 = 약간 낮은 점수 4 = 중간, 5 = 약간 높은 점수, 6 = 꽤 높은 점수, 7 = 매우 높은 점수).

(2) 추정된 성숙도(매개변인 1)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를 '어른스러운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어른스러움과 관련이 있는 정신적 성숙성, 성인다운 행동, 그리고 반대의 차원에 해당하는 아이다움을 반영하는 다섯 개 문

항을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어른스럽게 행동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것 같다(역문항)', '이 사람은 아이처럼 느껴진다(역문항)', '이 사람은 어리숙할 것 같다(역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답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 '거의 동의하지 않음', 3 = '약간 동의하지 않음', 4 = '중간', 5 = '약간 동의함', 6 = '상당히 동의함', 7 = '매우 동의함'; Cronbach's α = .87).

(3) 공감적 관심(매개변인 2)

참가자들이 이민자에 대해 얼마나 공감적 관심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Drwecki 등(2011)이 공감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곱 개의 단어 중에서 본 연구의 맥락에 맞는 세 단어를 선정하였다. 각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문장의 형태로 변환시킨 뒤,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적 관심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나는 이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이 걱정된다'의 세 문항에 7점 척도로 답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거의 그렇지 않다', 3 = '약간 그렇지 않다', 4 = '중간', 5 = '약간 그렇다', 6 = '상당히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 Cronbach's α = .89).

(4)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

신체적 고통 문항은 Summers 등(2021)이 사용한 여덟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람은 침대 난간에 발가락을 찍혔다', '이 사람은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베였다' 등의 여덟 문항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 = .93). 사회적 고통은 Deska 등(2020)이 사용한 10개의 문항 중에서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맞지 않은 문항 하나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항 하나를 제거한 여덟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람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조롱했다', '이 사람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 = .94). 각 문항에 대해 참가자들은 이민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지를 9점 척도로 답하였다(1 =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음', 9 =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음'). 각 하위척도의 문항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고통을 크게 추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5) 기타 측정 변인들(주의 점검 및 참가자 경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성을 집중하여 듣지 않은 참가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 주의 점검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음성 속 인물은 대형 마트에 가기 위해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세 개의 보기(1 = '버스', 2 = '택시', 3 = '자전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였다. 1번이 아닌 다른 응답을 할 경우, 해당 참가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오답을 선택한 참가자는 없었다.

참가자 개인의 경험이 이민자에 대한 물음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의 외국 관련 경험과 친구 수를 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외국 관련 경험에 대해 '귀하는 유학 또는 교환학생, 취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의 물음에 5점 척도로 답하였다(1= '없다', 2 = '3개월 미만', 3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 = '6개월 이상-1년 미만', 5 = '1년 이상'). 또한, 언어 유창성과 관련된 외국인 친구의 수를 묻기 위해, '귀하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참가자들은 5점 척도로 답하였다(1 = '없다', 2 = '1명 이상-3명 미만', 3 = '3명 이상-6명 미만', 4= '6명 이상-10명 미만', 5 = '10명 이상').

3. 결 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와 기술통계치는 <표 1>에, 각 조건에서의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높은 언어 유창성은 1, 낮은 언어 유창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이민자의 성별은 여성을 0으로, 남성을 1로 코딩하였다.

2) 언어 유창성에 대한 조작 점검

언어 유창성의 조작에 따라 참가자들이 음성 속 인물의 언어 유창성 수준을 높게 또는 낮게 지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높음 vs. 낮음)을 독립변인 1로, 이민자의 성별(남성 vs. 여성)을 독립변인 2로, 조작 점검 응답값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조작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언어 유창성 조작에 따라 조작 점검 응답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276) = 386.06$, $p < .001$, $\eta^2 = .58$. 참가자들은 높은 언어 유창성 조건의 이민자를 낮은 언어 유창성 조건의 이민자보다 언어 유창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이민자 성별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F(1, 276) = 0.88$, $p = .35$, $\eta^2 = .00$, 이민자 성별과 언어 유창성의 상호작용 효과 또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변인	3	4	5	6	7	평균(표준편차)
1. 언어 유창성	.76**	.44**	-.36**	.11	.07	-
2. 이민자 성별	-.04	-.08	-.11	-.07	-.05	-
3. 조작 점검	-	.54**	-.34**	.14*	.11	4.11(1.58)
4. 추정된 성숙도		-	-.42**	.19**	.19**	4.85(0.94)
5. 공감적 관심			-	-.15*	-.07*	3.35(1.27)
6. 신체적 고통				-	.72**	6.44(1.48)
7. 사회적 고통					-	6.51(1.46)

*p<.05, **p<.01.

<표 2> 관심 변인들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

	높은 언어 유창성		낮은 언어 유창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조작 점검	5.27(1.10)	5.34(1.06)	3.06(0.87)	2.76(1.04)
추정된 성숙도	5.21(0.87)	5.32(0.83)	4.64(0.82)	4.23(0.83)
공감적 관심	3.10(1.23)	2.67(1.16)	3.88(1.12)	3.74(1.21)
신체적 고통	6.69(1.66)	6.51(1.32)	6.39(1.51)	6.19(1.37)
사회적 고통	6.47(1.49)	6.35(1.37)	6.70(1.64)	6.54(1.31)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276) = 2.31$, $p = .13$, $\eta^2 = .01$. 이러한 결과는 언어 유창성 조작이 이민자 성별과 무관함을 보여주며, 언어 유창성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참가자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3) 언어 유창성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고통 추정(연구 가설 1)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을 조작함에 따라 이민자의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을 독립변인 1로, 이민자의 성별을 독립변인 2로, 추정된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종속 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언어 유창성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민자의 신체적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76) = 3.14$, $p = .08$, $\eta^2 = .01$, 성별의 주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276) = 1.19$, $p = .28$, $\eta^2 = .01$.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F(1, 276) = 0.01$, $p = .95$, $\eta^2 = .01$. 이러한 결과들은 참가자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s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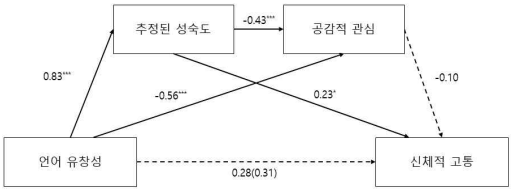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적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276) = 1.49$, $p = .22$, $\eta^2 = .01$. 마찬가지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276) = 0.66$, $p = .42$, $\eta^2 = .00$,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F(1, 276) = 0.02$, $p = .92$, $\eta^2 = .00$. 추가로, 참가자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s > .18$.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효과는 이민자의 두 유형(신체적, 사회적)의 고통 추정에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연구 가설 1이 지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사전등록 시에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의 성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이민자의 성별, 그리고 참가자의 성별 사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 1을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으로, 독립변인 2를 이민자의 성별로, 독립변인 3을 참가자의 성별로, 종속 변인을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으로 각각 설정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이민자의 성별, 참가자의 성별 사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신체적 고통: $p = .89$; 사회적 고통: $p = .14$).

4) 추정된 성숙도와 공감적 관심의 이중 매개효과(연구 가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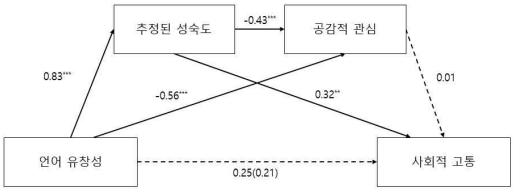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간접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는 Hayes(2009)의 제안에 따라 연구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즉,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이 이민자에 대한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추정된 성숙도와 공감적 관심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6를 이용하여 이중 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인을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으로, 매개변인 1을 추정된 성숙도로, 매개변인 2를 공감적 관심으로, 종속 변인을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으로 각각 투입하여 총 두 번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표본수는 10,000으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이중 매개모형

<그림 1>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 → 신체적 고통'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B = 0.02, SE = 0.03, 95% CI [-0.04, 0.08],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공감적 관심 → 신체적 고통'의 경로에서도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3, SE = 0.04, 95% CI [-0.05, 0.13]. 그러나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 고통'의 경로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24, SE = 0.10, 95% CI [0.05, 0.45].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 고통'의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민자의 높은 언어 유창성은 성숙도를 높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 있었으며, B = 0.83, SE = 0.10, t = 8.14, p < .001, 95% CI [0.62, 1.03], 높게 추정된 성숙도는 신체적 고통을 높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23, SE = 0.11, t = 2.12, p = .03, 95% CI [0.02, 0.44]. 이러한 결과의 패턴은 참가자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2>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이중 매개모형

다음으로, <그림 2>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 → 사회적 고통'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B = -0.02, SE = 0.03, 95% CI [-0.08, 0.03],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공감적 관심 → 사회적 고통'의 경로에서도 간접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B = -0.03, SE = 0.04, 95% CI [-0.12, 0.06]. 반면,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사회적 고통'의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29, SE = 0.10, 95% CI [0.10, 0.51].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사회적 고통'의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민자의 높은 언어 유창성은 성숙도를 높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 있었으며, B = 0.83, SE = 0.10, t = 8.14, p < .001, 95% CI [0.62, 1.03], 높게 추정된 성숙도는 사회적 고통을 높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31, SE = 0.11, t = 2.95, p = .004, 95% CI [0.10, 0.52]. 참가자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발견되었던 결과의 패턴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이중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연

구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 고통'과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사회적 고통'의 경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낮은 언어 유창성 이민자에 대해서 덜 성숙하다고 지각하고 그들이 고통을 덜 느낀다고 추정하는 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이민자 성별로 조절된 이중 매개효과(탐색적 분석)

본 연구에서 탐색적 연구 문제로 설정했던 연구 가설 2에 대한 이민자의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 → 신체적/사회적 고통'의 각 경로를 이민자의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84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을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으로, 매개변인 1을 추정된 성숙도로, 매개변인 2를 공감적 관심으로, 종속 변인을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으로, 이민자의 성별을 각 경로의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총 두 번의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표본수는 10,000으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b*)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세 경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 → 신체적 고통'의 경로, b = .02, SE = 0.02, 95% CI [-0.01, 0.07],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 고통'의 경로, b = .12, SE = 0.08, 95% CI [-0.00, 0.29],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공감적 관심 → 신체적 고통'의 경로, b = .01, SE = 0.03, 95% CI [-0.06, 0.08].

사회적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b*)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 → 사회적 고통'의 경로, b = -.00, SE = 0.02, 95% CI [-0.04, 0.04],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공감적 관심 → 사회적 고통'의 경로, b = -.00, SE = 0.02, 95% CI [-0.06, 0.04]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사회적 고통'의 경로에서는 이민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b = .16, SE = 0.08, 95% CI [0.02, 0.35]. 이민자의 성별이 여성일 때, B = 0.18, SE = 0.09, 95% CI [0.04. 0.37], 그리고 남성일 때, B = 0.34, SE = 0.13, 95% CI [0.10. 0.62], 모두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남성 이민자의 간접효과가 여성 이민자의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이민자보다 남성 이민자에게서 언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이민자의 성숙도를 추정할 때 차이가 크고, 차이가 사회적 고통 추정과 보다 강하게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라 이민자가 겪은 고통 추정에서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편향의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낮은 언어 유창성이 낮은 성숙도 추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공감적 관심과 고통 추정에 연결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라 이민자의 고통 추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이민자가 겪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고통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의 경험 및 인구통계적 변인들을 포함하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이 낮은 대상에 대해 성숙도를 낮게 추정하고, 이는 공감적 관심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더 높은 신체적/사회적 고통 추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연구 가설 2 또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기에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사회적 고통'의 경로에서 추정된 성숙도의 간접효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이 낮은(vs. 높은) 대상의 성숙도를 낮게 추정하였고 낮게 추정된 성숙도는 낮은 신체적/사회적 고통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자의 경험 및 인구통계적 변인들을 포함시키더라도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연구자가 예상했던 방향인 언어 유창성이 낮은 대상에 대해 신체적/사회적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일지라도 효과 크기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접효과가 관찰된 각 경로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 고통'에 대한 표준화 계수(β)는 .16으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사회적 고통'에 대한 표준화 계수(β)는 .2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enny(2021)가 제시한 매개효과의 효과 크기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두 경로의 계수가 모두 중간 효과(.09)와 큰 효과(.25)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추정된 성숙도가 언어 유창성과 신체적/사회적 고통 간의 관계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사회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이 고통 추정이나 차별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차별 반응과 연결될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언어 유창성이 단순한 의사소통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지각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민자/외국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외국인 당사자들에 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적응이나 정신 건강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김교헌, 권선중, 박은진, 2007; 정기선, 한지은, 2009).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마주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편향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한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언어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편향을 살펴보고, 그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봤음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이민자들의 성숙도 추정에 편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같은 대상이더라도 유창성 수준만을 조작하였을 때, 낮은 유창성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낮은 성숙도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록 이민자의 사진을 제시하여 이민자의 외적 특성이나 나이를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자를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이민자에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지에 따라 성숙도 추정에 편향이 나타난 것이다. 즉, 대상의 실제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숙도 등과는 별개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에 대한 언

어 유창성에 따라 토착 사회 구성원들은 이민자의 성숙도 추정에 편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낮은 언어 유창성의 이민자를 성숙도가 낮다고 추정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편향 및 차별 연구에 기초 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 유창성이 높은 대상을 더 성숙하게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성숙도 지각은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중에서 언어 유창성이 높은 대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은 언어 유창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언어 유창성과 관련된 영역들(예: 억양, 강세, 말하기 속도)은 화자의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언어 유창성이 높거나 원어민과 더 비슷할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Baquiran & Nicoladis, 2020; Deprez-Sims & Morris, 2010; Street et al., 1983). 본 연구에서 언어 유창성이 높은 이민자의 성숙도를 높게 지각하고 이것이 더 높은 고통 추정으로 이어진 것은 유창성이 높은 이민자에 대해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반면,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의 고통에 대해 과소추정한 것은 그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고통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백인과 흑인에 대한 고통 추정 연구들(Drwecki et al., 2011; Hoffman & Trawalter, 2016)에서 참가자들이 흑인보다 백인의 고통을 더 높게 평가한 것과 유사하며, 이는 백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고정관념, 그리고 흑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발견된 언어 유창성이 높은 이민자에 대해 더 높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 추정한 결과는 기존 언어 관련 영역에서 뛰어난 대상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긍정적 대상에 대해서 더 높은 공감적 관심을 보였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언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탐색하지 않았던 고통 추정 영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언어 관련 연구의 영역을 새로운 측면으로 확장하였음에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넷째, 언어 유창성의 효과가 참가자의 경험 및 인구통계적 변인(나이, 성별)을 통제한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참가자가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외국인 친구가 있더라도 또한 참가자의 나이나 성별이 다르더라도 이와 독립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지각 및 고통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적・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도 함께 시사한다. 사회 구성원이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라 성숙도나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는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언어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인지 능력, 실제 성숙도, 상황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캠페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민자의 한국어 유창성 조작은 언어학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이나 별도의 예비 연구를 통한 구성 타당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음성 속 이민자의 한국어 유창성 수준을 의도한

대로 지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높은 유창성 조건과 낮은 유창성 조건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참가자들이 두 조건을 서로 다른 수준의 한국어 유창성을 구사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음을 보여줄 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 자극이 한국어 유창성이라는 구성을 충분히 대표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학이나 한국어 교육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극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예비 연구를 통해 유창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자극의 구성 타당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매개변인인 추정된 성숙도의 측정을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성숙도에 대한 개념과 본 연구에서 성숙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르기에 기존 척도들(예: 문정순, 2014; 박정희, 2002)이 직접 포함하지 않은 '어른스러움'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들은 표준화된 척도 개발 시 요구되는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척도 구성의 미흡함은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이민자의 음성을 듣고 이민자에 대해 떠올렸을 때, 어느 인종을 떠올렸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과 이민자의 음성에서 발음을 통해 그들이 어느 국가의 사람일지 대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높은 유창성을 가진 이민자를 백인으로 생각하고 낮은 유창성을 가진 이민자를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으로 생각했다면 인종에 대한 편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언어적 특성(예: 일본인들의 외국어 발음, 중국인들의 억양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음성 속 대상의 국가를 추론하고, 그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대상에 대한 판단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Ha(2025)의 연구에서 대상의 출신 국가를 중국인과 스위스인으로 조작하고 언어 유창성 수준(높은 vs. 낮은)에 따른 주체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언어 유창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출신 국가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언어 유창성의 효과가 대상의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남성과 여성의 음성 자극은 서로 다른 국적의 화자가 녹음하였기에 성별 조건이 화자의 국적, 억양, 음색 및 개인의 발화 특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확인된 성별에 따른 차이나 남성 이민자에서 상대적으로 큰 간접효과는 성별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이러한 음성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국적의 남녀 화자를 사용하거나 동일 화자의 음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별 효과와 화자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Drwecki et al.(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영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음성만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이 음성만을 제시받는 것은 추후 제시된 고통 추정 문항에 응답할 때, 음성과 고통 추정 문항 간의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영상을 사용하고 문항을 함께 제시했더라면, 참가자들이 더욱 몰입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적 고통 표현에 대한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영상 속 인물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같은 단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만을 이용한 방법은 언어 유창성 자체가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측면들(예: 얼굴 표정, 고통 관련된 신체 동작)과 분리하여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 → 신체적/사회적 고통"의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하진 않았으나, 언어 유창성과 추정된 성숙도 간의 부적 상관(r = −.36), 추정된 성숙도와 공감적 관심 간의 부적 상관(r = −.42)이 발견되었고, 공감적 관심과 신체적/사회적 고통 추정 간의 부적 상관(신체적: r = −.15, 사회적: r = −.07) 또한 관찰되었다. 즉,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공감적 관심"까지의 경로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였으나 공감적 관심과 고통 추정 간의 관계가 본 연구의 예측과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감적 관심과 고통 추정 간의 관계가 본 연구의 예측과 반대인 부적 상관이 관찰된 것은 참가자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민자에 대해 더 적대적 태도를 가지며(Guimond et al., 2010), 보수적 성향 또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Caricati et al., 201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 특성을 고려하고자 참가자 여러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제하거나 조절변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연구 가설 2에서는 낮은 유창성 이민자의 성숙도를 낮게 지각하고 이는 높은 공감적 관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높은 신체적/사회적 고통과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중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사회적 고통'의 단순 매개효과만 관찰되었다. 또한 그 방향이 연구자의 예상과 달리,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의 성숙도를 낮게 추정할수록 그들의 신체적/사회적 고통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에 대해서 덜 성숙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그들의 인간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인간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비인간화(dehumanization; Haslam, 2006)와 관련되며, 비인간화는 사람들이 한 개인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인간성을 결여한 존재로 지각하는 현상을 뜻한다. 대상을 비인간화하는 현상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특정 대상들을 비인간화하면, 그 대상을 도와줄 의도가 감소하고(Cuddy, Rock, & Norton, 2007),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Bandura, Underwood, & Fromson, 1975). 또한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기계로 취급하여, 정서를 덜 느끼는 존재라고 지각하기도 한다(Leyens et al., 2003). 의사들이 환자를 비인간화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고통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더 침습적인 치료를 권장하기도 하였다(Lammers & Stapel, 2011).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낮은 언어 유창성의 이민자에 대해 성숙도를 낮게 추정한 결과가 이민자의 인간성을 낮게 추정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사회적 고통'의 경로가 비인간화 현상의 일환으로 해석되어 최종적으로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해 고통을 더 낮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인간성 추정

의 편향(비인간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의 가능한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신체적/사회적 고통'의 경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될 수 있다. 선행 연구(Summer et al., 2021)에서 참가자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대상의 고통을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대상보다 더 낮게 추정하는 둔감화(desensitization)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Summers et al., 2023). 본 연구에서의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판단하고 이러한 대상들이 겪은 고통을 낮게 추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어 유창성에 따른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연구 모형들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 → 추정된 성숙도 → 사회적 고통'의 경로에서 이민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 언어 유창성이 추정된 성숙도를 통해 사회적 고통 추정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여성 이민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는 여성들은 사회적 고통에 남성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여(Lloyd et al., 2020; Paganini et al., 2023), 유창성이 높은 여성 이민자와 낮은 여성 이민자 간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추정 차이가 유창성이 높은 남성 이민자와 낮은 남성 이민자 간의 차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민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이유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나타났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본 연구는 한국인 참가자를 모집하여 이민자들의 한국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편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가 한국 언어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또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한 해석에 제약이 존재한다. 비록 언어 유창성과 관련된 특성들에서 원어민과 다른 억양 등의 특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판단 및 지각에 편향(Baquiran & Nicoladis, 2020; Deprez-Sims & Morris, 2010; Hosoda & Stone-Romero, 2010)이 관찰되었을지라도, 추정된 성숙도나 고통 추정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드물기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다른 문화권이나 언어권에서도 일관적으로 관찰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유창성에 따라 이민자가 겪는 고통 추정의 편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 처치나 심리적 치료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언어 유창성과 추정된 성숙도, 고통 추정 간의 관계가 나아가 이민자에 대한 처치 및 처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찰된 편향이 의료 장면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료업계 종사자(예: 의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검증되는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발견된 편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러한 편향을 감소시킬 핵심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데이터처 (2024).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109&act=view&list_no=434229

국립국어원 (2026). 성숙. 표준국어대사전.

김교헌 · 권선중 · 박은진 (2007).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적응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소>, 18, 1-25.

김유균 · 손인서 · 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김희주 (2019).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사회>, 10(1), 13-28.

문정순 (2014).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91-107.

박정희 (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유진 (2008).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1(2), 1-20.

안미영 (2015). 다문화교실에서의 한국문화교육 방안. <어문론집>, 63, 319-348.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오영삼 · 노은영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서울시민의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5(1), 187-209.

정기선 ·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회>, 32(2), 87-144.

정현 · 박서연 · 전희정 (2017).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 · 문화적 · 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4), 307-336.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20).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92&menuid=001004002001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Bandura, A., Underwood, B., & Fromson, M. E. (1975). Disinhibition of aggression through diffusion of responsibility and dehumanization of victim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4), 253-269.

Baquiran, C. L. C., & Nicoladis, E. (2020). A doctor's foreign accent affects perceptions of competence. *Health Communication*, 35(6), 726-730.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Batson, C. D., & Ahmad, N. (2001). Empathy-induced altruism in a prisoner's dilemma II: What if the target of empathy has defect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25-36.

Batson, C. D., Lishner, D. A., & Stocks, E. L. (2015).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In D. A. Schroeder & W. G. Graziano (Eds.),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pp. 259-281). Oxford University Press.

Beebe, L. M., & Giles, H. (1984). Speech-accommodation theories: A discussion in terms of second-langua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46, 5-32.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Caricati, L., Mancini, T., & Marletta, G. (2017). The role of ingroup threat and conservative ideologies on prejudice against immigrants in two samples of Italian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1), 86-97.

Chambers, F. (1997). What do we mean by fluency? *System*, 25(4), 535-544.

Cheek, N. N., & Shafir, E. (2024). The thick skin bias in judgments about people in poverty. *Behavioural Public Policy*, 8(2), 238-263.

Cuddy, A. J., Rock, M. S., & Norton, M. I. (2007). Aid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Katrina: Inferences of secondary emotions and intergroup help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1), 107-118.

Deprez-Sims, A.-S., & Morris, S. B. (2010). Accents in the workplace: Their effects during a job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5(6), 417-426.

Deska, J. C., Kunstman, J., Lloyd, E. P., Almaraz, S. M., Bernstein, M. J., Gonzales, J. P., & Hugenberg, K. (2020). Race-based biases in judgments of social pai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8, Article 103964.

Deska, J. C., Pejic, S. R., Chen, J. M., & Kunstman, J. W. (2025). Judgments of refugees' sensitivity to pain: Evidence for a sensitization effect. *Collabra: Psychology*, 11(1), 143001.

Dovidio, J. F., Allen, J. L., & Schroeder, D. A. (1990). Specificity of empathy-induced helping: Evidence for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249-260.

Drwecki, B. B., Moore, C. F., Ward, S. E., & Prkachin, K. M. (2011). Reducing racial disparities in pain treatment: The role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Pain*, 152(5), 1001-1006.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Gluszek, A., & Dovidio, J. F. (2010). The way they speak: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tigma of nonnative accents in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2), 214-237.

Greenberger, E., & Sørensen, A. B. (1974). Toward a concept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329-358.

Guillot, M-N. (1999). *Fluency and its teaching. Multilingual Matters.*

Guimond, S., De Oliveira, P., Kamiesjki, R., & Sidanius, J. (2010). The trouble with assimilation: Social dominance and the emergence of hostility against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6), 642-650.

Ha, C. H. (2025). *The Effects of Immigrants' Language Fluency on Mind Perception and Judgments Toward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 C. H., & Park, S. H. (2024). More friends, less pain? Higher social support predicts estimation of less pain through impression and expected buffering effect.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43(48), 36820-36830.

Haslam, N. (2006).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3), 252-264.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Helson, R., & Wink, P. (1987). Two conceptions of maturity examined in the findings of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31-541.

Hoffman, K. M., & Trawalter, S. (2016). Assumptions about life hardship and pain percep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9(4), 493-508.

Hosoda, M., & Stone-Romero, E. (2010). The effects of foreign accents on employment-related decision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2), 113-132.

Jaremka, L. M., Andridge, R. R., Fagundes, C. P., Alfano, C. M., Povoski, S. P., Lipari, A. M., ... Kiecolt-Glaser, J. K. (2014). Pain, depression, and fatigue: Loneliness as a longitudinal risk factor. *Health Psychology*, 33(9), 948-957.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11). Is low empathy related to bullying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social background variables?. *Journal of Adolescence*, 34(1), 59-71.

Kenny, D. A. (2021). *Mediation*. Retrieved from

Kinzler, K. D., Dupoux, E., & Spelke, E. S. (2007). The native language of social cogni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30), 12577-12580.

Klimecki, O. M., Mayer, S. V., Jusyte, A., Scheeff, J., & Schönenberg, M. (2016). Empathy promotes altruistic behavior in economic interactions. *Scientific Reports*, 6(1), 31961.

Knoll, M., Uther, M., MacLeod, N., O'Neill, M., & Walsh, S. (2006). *Emotional, linguistic or just cute. In The function of pitch contours in infant-and foreigner-directed speech*.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ech Prosody, Dresden, Germany.

Lammers, J., & Stapel, D. A. (2011). Power increases dehumaniz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1), 113-126.

Leyens, J.-P., Cortes, B., Demoulin, S., Dovidio, J. F., Fiske, S. T., Gaunt, R., Paladino, M.-P., Rodriguez-Perez, A., Rodriguez-Torres, R., & Vaes, J. (2003). Emotional prejudice, essentialism, and nationalism: The 2002 Tajfel Lec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6), 703-717.

Lim, D., & DeSteno, D. (2016). Suffering and compassion: The links among adverse life experiences, empathy, compassion, and prosocial behavior. *Emotion*, 16(2), 175-182.

Lloyd, E. P., Paganini, G. A., & ten Brinke, L. (2020). Gender stereotypes explain disparities in pain care and inform equitable policies.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7(2), 198-204.

Luo, Y., Hawkley, L. C., Waite, L. J., & Cacioppo, J. T. (2012). Loneliness, health, and mortality in old age: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74(6), 907-914.

Oganian, Y., Heekeren, H. R., & Korn, C. W. (2019). Low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reduces optimism about the personal future.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2(1), 60-75.

Paganini, G. A., Summers, K. M., Ten Brinke, L., & Lloyd, E. P. (2023). Women exaggerate, men downplay: Gendered endorsement of emotional dramatization stereotypes contributes to gender bias in pain expec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9, 104-520.

Peltonen, P. (2024). Fluency revisited. *ELT Journal*, 78(4), 489-492.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Richard, F. D., Bond, C. F., Jr., & Stokes-Zoota, J. J. (2003). One hundred years of social psychology quantitatively describe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4), 331-363.

Schmidt, R. (1992).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second language fluenc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4(4), 357-385.

Sim, M., Kim, S. Y., & Suh, Y. (2022).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simple and complex mediation mode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82(1), 76-106.

Stocks, E. L., Lishner, D. A., Waits, B. L., & Downum, E. M. (2011). I'm embarrassed for you: The effect of valuing and perspective taking on empathic embarrassment and empathic concer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1), 1-26.

Street, R. L., Brady, R. M., & Putman, W. B. (1983). The influence of speech rate stereotypes and rate similarity or listeners' evaluations of speaker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1), 37-56.

Summers, K. M., Deska, J. C., Almaraz, S. M., Hugenberg, K., & Lloyd, E. P. (2021). Poverty and pain: Low-SES people are believed to be insensitive to pai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5, 104-116.

Summers, K. M., Paganini, G. A., & Lloyd, E. P. (2023). Poor toddlers feel less pain? Application of

class-based pain stereotypes in judgments of childre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4(2), 130-140.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Brooks/Cole.

Tavakoli, P., Nakatsuhara, F., & Hunter, A.-M. (2020). Aspects of fluency across assessed levels of speaking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104(1), 169-191.

Weng, H. Y., Fox, A. S., Hessenthaler, H. C., Stodola, D. E., & Davidson, R. J. (2015). The role of compassion in altruistic helping and punishment behavior. *PloS one*, 10(12), e0143794.

Woltin, K.-A., Corneille, O., Yzerbyt, V. Y., & Förster, J. (2011). Narrowing down to open up for other people's concerns: Empathic concern can be enhanced by inducing detailed proces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2), 418-424.

Wood, D. (2001). In search of fluency: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7(4), 573-589.

The Effect of Immigrants' Korean Language Fluency on Observers' Estimation of Immigrant Pain: The Mediation Effect of Estimated Maturity

Chang Hyun Ha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physical and social pain estimation of immigrants depending on whether their language fluency is high or low, and whether these differences can be serially explained by the estimated maturity and empathic concern. Following a preregistered procedure,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randomly to one of four conditions varying by immigrant language fluency (high vs. low) and immigrant sex (male vs. female). The participants listened to an audio recording corresponding to their assigned condition and completed measures, such as estimated maturity, empathic concern, physical pain, and social pain. The results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fluency and the estimations of physical and social pain was mediated by estimated maturity. Specifically, the participants estimated immigrants with lower (vs. higher) language fluency as less mature, and lower estimated matur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estimations of physical and social pai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ing the immigrants' maturity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ir language fluency is high or low may bias the estimations of their pain.

Keywords: Immigrant, Language Fluency, Estimated Maturity, Empathic Concern, Physical Pain, Social Pain